

종 교

진 덕 규

(이화여대 법정대 교수)

종교와 사회변동 사이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각기 다른 설명이 가능해 진다. 종교가 사회변동을 일으킨 경우도 있으며, 그 반대로 사회변동 자체가 곧 종교의 영향력을 크게 해 준 경우도 있다.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적인 가치관이 자본주의의 발흥을 가져왔다는 주장이나, 또는 영국의 산업혁명이 경건한 종교적 기풍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도 종교가 곧 사회변동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그들의 급속한 경제발전은 일본의 전통적인 가족제도와 종교의 현대적인 접합현상이라는 주장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인식된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전쟁이나 또는 급격한 사회변동이 경과하고 난 후 급격하게 늘어나는 종교의 신도수는 곧 종교가 사회변동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뜻이 된다. 이처럼 종교는 사회변동과 직접 간접으로 연관되어 있고 인과적인 상보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사회의 바람직한 변동을 유도한 종교를 역사 속에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으며, 사회변동에서 빚어진 가치관적인 혼돈을 적절하고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를 조정통합시켜 준 종교적 기능도 지적될 수 있다.

지난날 30여 년의 기간 동안 우리 사회가 경험한 급격한 사회변동은 비록 그것이 가치적인 방향으로 나아갔는지 아니면 그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갔는지는 그만두고라도 그것은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종교와 연관되어 있음을 사실이다. 종교 때문에 급격한 사회변동이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게 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어도, 그러한 사회변동은 결과적으로 종교의 급격한 영향력의 증대를 가져왔다고는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종교에 의해서 사회변동이나 발전의 가치적 지향성이 설정되어 그러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가 보다는 변동이 빚어놓은 사회적인 혼돈이나 가치관적인 혼미 속에서 종교의 신장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먼저 두 단

제의 시기를 중심으로 하여 지난 30여 년 동안의 우리 사회의 종교의 성격을 살펴보기로 하자.

그 첫번째 단계는 한국전쟁을 고비로 하는 1953년의 전후기간을 들 수 있다. 또다른 한 단계는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추구되어 어느정도 그 결과가 나타내서 이른바 산업사회적 성격을 보여주기 시작했던 1970년 초기를 들 수 있다. 이 두 시기를 중심으로 하여 종교적인 성격을 살펴봄으로서 30여 년의 한국 사회변동 과정에서 종교가 보여준 성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53년은 한국전쟁이 휴전되었던 시기이다. 3년에 걸친 동족 사이의 혈투가 격렬하게 전개되어 그 이전의 어느 시기 보다도 격변한 사회적인 혼돈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전후의 정신적인 변혁은 종교에 대한 귀의를 자극하는 결과가 되었다. 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의 종교는, 비록 의례적이었지만 이미 한국화되어 버린 불교와 유교가 대표적인 종교였으며 이것 자체가 한국사회에서는 일종의 기층문화적인 성격을 이루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특정 종교의 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의 생활양식 자체가 전통적인 종교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천주교나 개신교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근대화의 가치체계와 함께 수용되었던 천주교와 기독교가 점점 더 그 영향력을 확대해 왔으며, 해방 이후에는 한국사회의 정치적 성격과 연관해서 일층 더 그 영향력이 증대한 것도 사실이었다. 해방 이후부터 대한민국의 건국시기까지 무신론적인 공산주의자들의 이데올로기적 도전에 과감히 맞설 수 있었던 정신적인 가치가 바로 이들 종교였으며 현세와 내세의 영원을 연결시켜서 가치적인 정치사회의 실현을 추구했던 종교인들의 의식과 행동은 그만큼 공산주의자들의 도전을 극복하는 또 다른 가치적 이데올로기로 기능할 수 있었다.

해방과 건국 그리고 한국전쟁의 와중에서 종교의 영향력은 표면적이거나 또는 주도적이라고는 할 수 없어도 가치적인 기반으로서, 또는 사회통합의 이념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전쟁을 경과함으로써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전통적인 삶의 양식에 대한 이탈현상이 나타났다. 경전함 대신에 부박함이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내세에 대한 기대감 대신에 현실에 대한 집착이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흔히 전후적 사회성격이라고 설명되는 바로 그러한 현상이었다. 전쟁을 경과하고

난 이후의 사회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서는 쾌락추구의 성격이 보이게 된다. 삶의 경건성은 찰나적인 감성의 충족으로 지향하는 자기상실적인 마취 속에서 스스로를 매몰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성격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의 상실이며 이웃에 대한 불신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쾌락추구적인 성격은 어떤 의미에서는 허무주의로 기울어 질 수밖에 없다. 보다 더 강한 것, 보다 더 확고한 것에 대한 철저한 귀속만이 스스로를 지켜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쾌락지향적이면서도 허무주의적인 속성은 그만큼 종교에의 귀의를 자극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1953년 이후의 시기가 그 이전에 비하여 종교의 급격한 대두현상이 나타난 것도 이러한 의미에서 설명될 수 있다. 그 시기 이후 60년대의 중반기까지 종교의 증대는 그 이전보다도 일층 더 활발하게 나타났다. 몇몇 유사종교의 대두도 이 기간에 빛어진 현상이었다. 박태선 장로의 문제라든가 통일교의 문제 등이 나타났으며 종교계의 분열도 이 시기의 한 현상이었다. 대처승 비구승 사이의 갈등은 정통불교의 전승에 대한 주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대립이었으며 기독교의 교단분열 등도 심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종교가 이처럼 전쟁 이후의 사회적 혼란과 그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허무주의적인 성격에 의하여 그 영향력이 증대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전후의 사회적 성격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으로도 기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사실상 이루어질 수 없었다. 쾌락추구의 정신적인 폐허를 삶의 정진성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종교에 의해서 기대될 수 있었지만 불행히도 그 당시의 우리 사회에서의 종교는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는 못하였다. 허무주의적인 현실인식을 철저한 인간적인 자기발견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종교적 가능성도 또한 무산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서는 종교가 마침내 또 다른 허무주의를 촉발시켜주는 역기능까지 미치게 되었다.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인격적인 차이도 점차 모호해지기 시작했다. 종교 자체가 전통시대의 구국안민이나 광제창생의 가치적 명제의 실현은 고사하고라도, 인격적인 자기확립과 절대자에의 귀속이 현실적인 자기규제의 업적함에서 연유되어야 한다는 종교적인 계율조차도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1970년대의 초기는 이미 앞에서도 지적하였지만 산업화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던 시기였다. 당시의 산업화가, 비록 조국근대화라는 이름으로 전개된 것이라 할지라도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여러가지

의 한계가 없지 않았다. 산업화는 엄격한 의미에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산업화는 가치로운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질 높은 사회의 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산업화는 인간다움을 가능하게 해주는 하나의 조건일 뿐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5.16을 주도했던 군부 정치참여 세력은 산업화의 실현을 절대적인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목표는 곧 수단과 목표의 전 도라는 계기적 현상을 보여주게 되었다. 정치사회에서 가장 기대되는 가치는 역시 목적과 수단이 똑같이 정당할 때 비로소 그 실현이 기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화를 목표로 하였고 그것을 달성하는 수단 자체도 여전히 하면 된다는 비합리적이며 저돌적인 추구가 전개될 때 우리 사회에서는 심각한 가치적 갈등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 대기업가들의 비합리적인 상행위가 지탄을 면치 못했으며 일부관리들의 부패가 많은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가져다 주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산업화라면 그것은 그만큼 갈등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정치적인 갈등에서나 경제적인 갈등은 그만두고서라도 가치적인 갈등은 마침내 모든 사람들에 산업사회적 인간의 성격을 부여해 주고 말았다. 그것은 곧 소외의식의 만연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소외의식의 만연은 곧 자기상실의 경체성의 위기현상이기도 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에서 자연히 이전의 가정, 지역, 동료에 대한 일차적 귀속감의 상실이 나타나고 말았다. 전통사회적인 연대성이 무너지고 난 후 사람들의 혀친한 마음은 또 다른 귀속적인 대상을 찾아야 했고 그것이 마침내 종교에의 귀의를 자극하게 되었다.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으며, 어여한 것도 그것이 현실적이라면 믿을 수 없다는 심리적인 인식은 그만큼 종교적일 수밖에 없게 하였다.

산업화에 의해서 새로이 부를 점유한 이른바 신중산계층에서도, 그리고 상대적인 가치박탈감에 떨어져 버린 소외계층에 있어서도 종교는 더할 수 없는 피난처였다. 신중산계층의 경우는,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의 영속적인 점유를 위하여, 그리고 현실 속에서 보다도 미래에서 더 한층 의지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종교를 신뢰의 가치로 설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격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인의 종교적인 속성이라 할 수 있는 기복종교적인 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복종교의 특징이, 종교에 의한 자기 삶의 가치적인 추구보다는 종교에 대한 신앙 자체가 일정한 물질적인 대가를 기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는 곧 그만큼 물가치적인 것일 수밖에 없게 된다. 기

복종교의 이러한 몰가치적 성격은 마침내 인간화의 실현을 그만큼 억압하게 되며, 이는 또 다른 의미의 소외를 가져다 주게 된다. 신중산층의 종교적인 귀의가 이처럼 기복종교적 속성을 보여주었다면 소외계층의 종교적인 지향은 내세지향적인 광신주의의 성격으로 나타났다. 비록 현실 속에서는 소외된 상태로서 경제적으로는 빈곤을 경험하고 정치적으로는 억압받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천대받고 있다 할지라도 종교적인 신앙을 통하여 내세에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나은 위치에 설 수 있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 이들은 현실의 생활은 그만큼 무의미한 것이며, 그것은 다가올 미래의 내세를 준비하기 위하여 바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들의 종교적인 태도는 그만큼 광신적인 것일 수밖에 없게 된다. 1970년대 이후 산업화 결과로 나타난 우리 사회의 종교적인 성격은, 신중산계층은 그들대로, 그리고 소외계층은 또한 그들 나름으로 종교적인 열정을 통하여 현실을 설명하려고 하였다. 바로 이러한 현상이 종교의 폭발적인 증대로 나타났다. 어떤 의미에서 70년대 이후부터 우리 사회는 종교의 만국박람회이며 종교의 천국이라 해도 좋을 정도였다. 거의 모든 종교가 우리 사회에 유입되었으며, 심지어 일본의 국수주의적인 종교까지도 침투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외래의 사교까지도 벼젓이 종교의 탈을 쓰고 횡행하게 되었다. 이처럼 종교화의 극단적인 현상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종교의 세속화라는 또 다른 문제를 가져다 주었다.

물론 종교가 우리 사회에서 기여한 긍정적인 가치는 53년의 휴전 이후부터 70년대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전쟁기간에서나 전후의 복구시기에서 종교단체가 담당했던 전재민 구호사업이라든가 전쟁고아들의 보호 등은 정부의 뜻을 상회할 정도였다. 이러한 외형적인 기여 이외에도 정신적인 갈등과 격심한 허탈감에 떨어진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종교가 미쳤던 정신적 구원의 역할은 사실상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전후의 초토화된 사회에서 믿음의 바탕을 제공해 줌으로서 안정된 생업의 가능성을 열어줄 중요한 계기가 종교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전쟁기간 중에서나 그 이후의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철저한 저항과 이들의 유물론적인 침투를 종교에 의하여 정신적으로 격퇴시킬 수 있음도 크나큰 기여라 할 수 있다.

다만 70년대 이후 일부 종교가 보여준 몇 가지 사례들은 이미 앞에서 지적한 세속화적 성격을 보여 주었다. 그러한 성격은 곧 첫째로 종교의 경제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종교 신자의 급격한 증대는 종교단체의 경제적인 비 대화를 가져왔고 이러한 성격은 곧 기업경영적 속성을 불가피하게 했다. 종교단체에 의해서 조성된 경제적인 가치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것은 사회사업과 같은 구원의 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과는 달리 일부 종교집단의 경우 그것은 종교인의 경제적 기반으로 작용하는 성격을 보여 주기도 했다. 극히 부분적 현상이기는 했지만 일부 종교에서는 이렇게 형성된 축재를 중심으로 하는 내부 갈등을 빚는 소동까지 보여주었다. 수많은 종교단체의 난립도 경제적인 성격과 무관하지 않은 일면도 있었다.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같은 전물에 동일한 종교가 각종마다 따로 이 모임을 가지고 있는 기현상은 가장 잘 종교의 기업화적 성격을 설명해 주고 있다.

두번째로는 종교의 교조화 현상을 들 수 있다. 물론 종교는 특정적인 교리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배타적인 인식은 종교적인 성격일 수도 있다. 그러나 종교는 또한 화해와 용서의 관용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벼롭받은 사람에 대한 구원은 물론이고 자기와 다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도 그것은 이해와 따스함을 보여줄 수 있는 포용의 태도로 일관되어야 한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서의 종교는 각기 교조적인 배타성이 의해서 서로 다른 종교나 종파를 질시하거나 또는 배척함으로써 심각한 교조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종교의 교조화 현상은 같은 종단이나 종교 내에서도 극심한 분파현상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종교 자체가 사회의 결속을 위한 장치가 되기 보다는 분열의 역기능까지 보여주는 영향도 미쳤다.

세째로는 종교의 정치화 현상을 들 수 있다. 종교와 정치와의 관계는 사실상 확연하게 구분하기가 힘들다. 종교의 경우도 모든 사람에게 가치적 구원의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정치의 경우도 인간다운 삶의 현실적인 보장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다만 종교의 경우는 이러한 가치적 실현을 정신적인 영역에 치중으로 하는 자발적인 의지에 의하여 전개하지만, 정치의 경우는 현실적이고 강제적이라는 차이가 있다. 정치와 종교와의 관계는 서로 미묘한 것이어서 상보적인 관계가 있었던 때도 있었고 대립적인 경우도 있었다. 바로 이러한 종교의 정치화 현상은 70년대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뚜렷한 현상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의도하는 종교의 정치화는 두 가지 차

원에서 생각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종교내부의 정치적 성격이며, 또 다른 하나는 실제 정치에 종교가 관여하는 경우이다. 종교 내부의 정치적 성격은 “두사람 이상이 모인 곳이면 정치가 있다”는 논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었다. 같은 종파, 같은 교단에서도 각기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종교인들의 정치적인 작태는 비종교인의 그것을 능가할 지경이었다. 분열과 대립의 극한을 치달리면서 종교를 개인의 영달을 위한 바탕으로 이용하려는 모습까지도 보여주는 부분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그런가하면 70년대부터 종교의 정치화는 일부 종교인들의 정치적 발언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독교의 경우 개인적인 구원과 사회적인 구원이 마침내 일치적인 연장선 상에서 인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 하였다. 박정희 정권의 독재체제가 인권의 유린으로 나타났고 민주주의의 제도적 성격이 극도로 위축되는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의 정치적 욕구를 대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성격을 일부 종교가 대신하는 성격을 보여 주게 되었다. 종교인들 중에서도 어떤 이는 인권보호에 앞장서는 이도 있었고, 민주주의의 실현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정치사회적 상황은 이들 일부 종교인들의 정치적인 성격을 규범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고 그들의 욕구가 정치적 자유의 실현에 있음을 인식하여 제도적인 개선이나 발전을 추구하려는 기성 정치인들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했다. 그러나 상황은 이와는 달리 정치권력 소유자들의 강압적인 대응은 이들 종교인들의 의지를 일총 더 강화시켜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종교인에게는 행동 하나하나가 신념으로 무장될 수밖에 없다. 억압에 의하여 신념을 바꾼다는 것은 종교인의 가장 큰 수치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부 종교인들의 정치적 참여는 때로는 억압적인 상황 속에서도 정치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주장하였고 노동자의 인권을 위한 노력도 경주하였다. 다만 이러한 정치적 성격을 종교인으로서의 정치적 영향이라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정치에 대한 규범적인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즉 이들 종교인들은 정치를 당위의 차원에서만 인식할 뿐 아니라 궁극적인 실현의 의미에서만 바라보는 제약점도 없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정치가 가지고 있는 현실성을 종교의 규범성으로만 인식할 때 생기게 되는 비정치적인 것의 정치화라는 또 다른 상황에 부딪치게 된다. 이러한 성격이 70년대 이후의 우리 사회 종교계가 부분적이거나마 보여준 정치적인 도전이라면, 또 다른 정치적

인 성격은 거의 맹목적일 정도로 정치에 대하여 수용과 지지를 보여주는 단순반응적 속성을 지적할 수 있다. 중요한 정치적 결정 과정에는 의례히 지지적 성명을 남발하는 종교계 일부 인사들의 태도는 종교와 정치의 관계를 다시 한번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우리 사회의 종교의 지난 30여 년간의 존재방식 또는 기능적인 가치를 고려할 때 그것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결같이 사회변동의 거대한 변혁과정에서 선도적인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단순히 부수적인 결과적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은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화의 급격한 사회변동은 우리 사회에 물질적이거나 정신적인 갈등과 소외를 어느 정도 야기시킨 것만은 사실이며, 이러한 성격 속에서 갈등을 통합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치유의 정치적 기능을 종교에서 기대하는 것도 현실적인 요구인 것만은 사실이다. 만일 이러한 기대가 종교의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또 다른 물질적인 갈등을 가속화시켜 주고 정신적인 소외를 심화시킨다면, 그것은 종교의 역기능을 뜻하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비대한 교회의 모습 속에서, 살인극까지 보여주고, 사찰을 통해서 그리고 외국에서까지 법정시비로 번져서는, 국민적인 낭패감까지 가져다 주는 종교단체의 활동에서, 심지어는 특정 종파의 관념적 생각을 현실적인 진리로 받아들여 그밖의 다른 것을 배척하고 단죄시하는 종교인의 태도는 한마디로 사회의 통합 보다는, 개개인들의 정신적 구원 보다는 갈등과 소외를 심화시켜 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근대 외래종교의 전교가 200주년, 또는 100주년을 맞이하여 수 많은 신자와 교도가 거듭되는 자축의 분위기를 가졌고 심지어 교황까지 한국을 방문하는 기회도 있었다. 그러한 경축 속에서 외국에서 온 교황이 던지고 간 한마디의 부탁이 민족적 전통과 함께 하는 종교로의 당부라는 사실은 실제로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가져다 주는 훈계였다. 저 많은 교회의십자가와 불당과 그밖의 종교단체들이 이땅의 구원을 위하여 사회 속에서 역사 앞에 심지어 성실한 시민 앞에 종교적이면서도 민족적인 해답을 갖고서 섬기는 자로서의 겸허함을 보여 줄 수만 있다면 한국의 종교는 또 다른 가능성으로 예비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